

# 전주시, 내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방문활동 보고회... 20일까지 1조3000억원 목표 활동 추진

전주시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활동 현장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박순중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간부공무원 10여명은 16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기획재정부 등 각 정부부처를 방문해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 반영을 위해 발품을 팔았다.

시는 또 각 부처별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이어 박순중 부시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활동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주시의 성장동력이 될 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예산 중점확보대상사업으로 선정된 129개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과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시는 그간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마련하는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세 차례에 걸쳐 개최하고 전주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힘써왔다. 그 결과, 신규사업 67개 사업을 포함한 총 129개의 중점사업 7,989억원 규모의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잠정 확정했으며, 이는 사회복지 국비보조금 등을 포함할 경우 2019년 국비사업 총액은 약 1조3,000억에 달한다.

특히, 시는 △정복 지속가능 벤처기업 연수원 건립 △드론메카도시 조성



전주시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활동 현장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테이블웨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도시 바깥길 순 조성사업 △전주 청년희망드림센터 구축 등 국가예산 확보 30대 중점대상사업을 선정, 국가예산 사업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이날 국가예산 확보활동에 이어 기재부에서 각 부처에 실명액을 통보하기 전인 오는 20일까지 1주일 동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집중방

문 기간으로 설정하고,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실을 지속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해 힘을 기울인다.

나아가, 각 부처에서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논리를 보강하고, 사업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부처의 예산편성 운

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순중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날 현장보고회에서 "예산편성단계에서 관계부처 국·과장과 실무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집요하게 방문 설명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서러면 경우에 따라 상주하며 설득에 나서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김민근 기자

## 평생교육 전문강사 100여명 탄생

### 전주시 평생학습 강사학교 '다른생각, 다른시선' 수료식

전주에서 활동해온 평생학습 강사와 강사활동을 희망하는 예비강사 등 100여명이 전주시 평생교육을 이끌어갈 전문강사로 거듭났다.

전주시는 16일 전북대학교 박물관 강당에서 2018년 전주 평생학습 강사학교인 '다른생각, 다른시선'에 참여한 평생학습 강사와 예비강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식을 가졌다.

평생학습 강사학교는 평생학습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 강사를 꿈꾸는 예비평생학습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올해 교육에는 예년보다 다양한 분야의 활동 강사와 다양한 연령대의 수강생이 참여했다.

올해 평생학습 강사학교는 △전하영 강사의 '평생학습 강사의 시대적 가치와 역할' △장석원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의 '1년을 3개월씩 나눠 살기' △김보통 웹툰 작

가의 '어른이 된다는 서글픈 일' △곽종근 에너지프렌드 대표의 '세상이 부러워하는 에너지를 가져라' △김형환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교수의 '프로강사로 성장하는 3가지 전략' △조석중·박정희·정문기 강사의 강사토론회 '강사3인에게 듣는 품격 있는 강사로 살아가기' 등 총 6강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평생학습 강사들이 전문강사로서 한층 더 성장한 것은 물론, 전국의 평생교육 강사 인력풀이 확대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촉진제 역할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 평생학습 강사학교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정과 평생학습 강사포럼을 제공하고, 기획과 홍보, 마케팅,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등 가장 경쟁력 있는 강사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민근 기자

## 동료 살해 미화원... '빚 1억5000만원 때문'

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소각한 50대 환경미화원은 동료에게 빌린 '1억5000만원' 때문에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강도살인과 사기, 사체는닉 등의 혐의로 이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A(58)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대형 쓰레기봉투에 담아 평소에 수거하는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 오전 6시 10분께 직접 A씨의 시신을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한 뒤, 소각장에서 불태웠다.

이씨는 범행 전 A씨에게 1억5000만원을 빌렸다. 또 범행 직후 A씨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했고 대출까지 받았다. 이씨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생활비와 유증비로 사용한 금액만 1억6000만원에 달했다.

검찰은 이씨가 급전직 갑등으로 인해 A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상민 기자

## '아무나 죽이고 싶어' 식당서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

'내애에 음식점에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식당 주인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박모(36)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9분께 익산시 중앙동의 한 음식점에서 주인 A(67·여)씨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 박씨는 A씨에게 "김치가 먹고 싶는데 포장해달라"고 말한 뒤, A씨가 김치를 비닐봉투에 담고 있는

사이 주방에 들어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경찰에 신고해달라"며 고함을 지르던 A씨의 목소리를 듣고 음식점 방 안에서 나온 손님 B(76·여)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술을 마시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누군가 죽이고 싶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 전주시, 온두레공동체 현장점검

전주시가 전수형 온두레공동체들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기로 했다.

시는 16일부터 27일까지 올해 선정된 63개 온두레 공동체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온두레공동체 사업은 전주시민 누구나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도모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돕는 전수형 공동체 사업으로, 도시 곳곳에서 교육과 먹거리,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체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시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공동체로서 첫발을 내딛은 1차년 디딤단계 공동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시스템과 회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체 사업 방향 등을 지도해줄 예정이다.

또한, 이음단계 및 희망단계 공동체의 경우, 애로사항 및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김민근 기자

## A 군산시장 예비후보 "기자 매수, 사실무근"

### "기자 만난 것은 좋은 기사 부탁하고자 자료 전달한 것"

지난 주말 각 언론에서 거론됐던 '군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가 지역 기자들에게 돈을 전달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해 해당 예비후보는 "전혀 근거도 없고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16일 군산시장 브리핑룸에서 A 예비후보는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기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전달한 것은 아니고 향후 나에 대해 좋은 기사를 부탁하고자 자료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 후보는 "당내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SNS를 통해 자신에게 인신공격성 흑색선전들이 이어져 이 자리에 오기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

의뢰 하라고 말하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를 매수하려 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후보직에서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해당 후보는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포털사이트를 통해 각 언론들은 '군산경찰서는 모 정당 소속 군산시장 예비후보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와 관련해 군산 지역 기자들에게 돈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16일 오후 3시 현재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 결과 선관위 측은 아직까지는 고발장이나 수사의뢰가 접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 전주한옥마을, 전통 과실수 식재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 내 유휴 공간과 마당에 전통 과실수를 심어 고유의 멋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한국적인 전통정원으로 가꾸기로 했다.

시는 오는 5월까지 국비 7000만원 등 총 1억 4000만원을 들여 한옥마을 내 89가구의 가정정원과 최명희문화관, 완판본문화관, 전통문화연수원, 중앙초등학교 유휴 공간에 전통 과실수를 심는 '전주한옥마을 한(韓) 과실수 식재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재되는 수종은 감과 살구, 모과, 자두, 대추, 석류, 앵두 등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는 유실수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분양계약서 분실 공고**

▷ 주소: 전주 예코시티휴먼빌(일반)  
0201동 1102호 24A 평형

▷ 이름: 강미영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http://www.ijmaeil.com)